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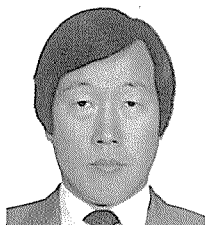
서울로 가는길

우리 옛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별로 좋지 못한 표현이 오늘 날에도 왕왕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비록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에 맞는 길을 찾아 最善을 다하여 目標을 達成해야 한다는 격려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어떤 수단으로든 目標만 達成하면 된다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서울 가는 길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成功的인 電算化를 이룩하여야겠다는 目標은 누구나의 희망이지만 電算化를 추진하는 수단으로의 소프트웨어는 正道나 正答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을 分析하고 設計하는 사람이 資質, 實力, 經驗 등에 따라 전적으로 成功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로 가는 길에 훌륭한 길잡이가 있다면 最短거리의 순탄한 길로 고생없이 目標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어설픈 길잡이를 따라 나섰다가는 험난한 산길과 깊은 계곡 등을 헤메이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開發過程에서도 開發팀장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專門家”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成功的 길을 갈 것인지 고난의 길을 갈 것인지에 가장 중요한 요

최금영
경한시스템 대표이사



인이 된다고 보겠다. 우리의 소비자 되시는 中小企業의 經營者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專門家”의 식별에 보다 신경을 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業體가 大企業이면 좋고 開發用役費가 저렴하면 더욱 좋다는 식의 意思結定을 내리고 있으니 서울로 가는 길이 힘들기만 할 수 밖에 없지요. 지금도 길잡이를 잘 못 만나 강원도 험한 산골짜기를 헤매이듯 난제의 연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제 지쳐서 아예 電算化를 포기해버리신 經營者 여러분들은 안계신지?

오늘이라도 훌륭한 “소프트웨어 專門家”를 찾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